





# 태양의 위업 받들어 조선의 영광 만방에 떨치시고

## 위대한 생애, 불멸의 업적

# 우리의 장군님은 백두산의 아들

백두산에 눈이 내린다. 조국강산이 가을해벌에 따듯하던 지난 9월 20일에 벌써 다가오는 겨울의 첫눈이 내리었다 백두산이다. 설레는 밀림과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떠나 어찌 백두산을 생각할 수 있랴.

백두의 아아한 편봉들과 천고의 밀림에 날리는 흰 눈발을 생각할 때면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로 달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와 함께 세월의 만고풍상을 헤쳐온 백두산의 상징적의미는 더욱 풍부해졌다. 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 우리 장군님은 백두산의 아들!

하여 백두산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졌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더욱 숭엄하게 자리잡았다.

위인이 전설을 낳고 전설속에 위인이 있다고들 한다.

무릇 위인전설은 주인공이 생존한 당대에는 생겨나지 않고 후세사람들에 의해 생겨나고 전해져왔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자 진실적인 명망을 지니셨고 그의 탄생과 관련된 백두광명성전설은 방대한 하나의 전설군을 이루었다.

백두산마루에 솟아오른 새 장수별 전설, 봉마위전설, 장검마위전설, 백두산밀영의 마가목전설, 정일봉의 불초전설...



백두산절세위인을 우리리 러치는 만세의 환호소리 하늘땅에 차념친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이러한 전설들은 백두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상이 곧 위인에 대한 숭상이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백두산의 아들을 닮아준 우리 인민의 영광이 짧은 시일에 형성된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있음을 말하여준다.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온 나라 곳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혁명적구호문헌들이 이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겨레여 백두산에 백두광명성 솟았다》

《삼천리강산에 밝은 빛 뿌리며 솟아난 백두광명성 만세》

《2천만 백의민족 대동운 백두광명성 출현》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소리로 알린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쓴 이 구호나무늬발들에서 특징적인것은 그의 존함을 백두산과 결부시켜 불렀다는 바로 그것이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과 성장

을 고이 지켜드린 백두산이었다. 솟아올라 내리는 백두의 눈송이가 혁명의 아들을 감싸준 포탄이었고 사남개 울부짖는 백두의 눈보라가 혁명의 아들을 감싸준 자장가였으며 사시절 푸르른 백두의 밀림은 혁명의 아들을 키워낸 고향집이었다.

유구한 세월 백두산은 성산이라 조신강토가 마련된 근부이고 조선의 생기가 일어번지는 근원이라고 신성시하고 절대적으로 숭상해온 우리 선조들이었지만 주조도 없는 백두산의

원시림속에 생가를 두시고 탄생하신분은 세상에 오직 한분 김정일동지뿐 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 하고 하는것은 항일혁명투사들의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뚝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토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백두산의 아들 백두산에서 탄생 하시어 포연에 젖은 옷을 입고 돌격 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의 인생은 첫시작부터가 남다른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 고 더불어》에 쓰신바와 같이 장군님께서 대가 바르고 배양을 받은것을 지닐수 있었던것은 세상에 가장 정의를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웠기때문이다. 백두산들이 지닌

고결한 감정은서서 품만한 자랑이 되어 그의 넋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피부리처럼 역설 투사들의 기쁨은 그의 남다른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영도자로 받들어모시었고 백두산의 정기는 곧 위대한 장군님의 영웅적기개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맞으신 백두의 칼바람은 그대로 그의 의지로

굳어지고 장군님께서 목격하신 항일의 용암은 그대로 그의 신념으로 뿌리내렸으니 진정 천하를 뒤 흔은 우리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은 백두산고대로였다.

백두산을 말할 때 역사에 아로새겨진 다음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떠올려다.

주제 71(1982)년 6월 중순 백두산기슭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있었다. 조선혁명의 시련이 열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건군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우리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것으로 하여 회의참가자들은 그 어떤 중대한 사변을 예감하였다.

이날의 뜻깊은 연설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은 인민군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적지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용성이 장내에 울려다.

지금 김정일동지가 인민군대를 당적으로만 지도하고있는데 군사적으로도 직접 지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군대를 직접 지도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차지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적과정이며 시대발전의 절박한 요구라는데 대하여 그리고 오늘의 시대는 군사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시대인것만큼 현시대의 발전추세와 군사사업에 정통하고 무력의 당력과 체제적이지, 세련된 령군술을 겸비한 장군님의 령군체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세우는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로 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의 무기를 담고 울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치르어온 항일의 로투사들로부터 새세대 지휘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크나큰 격정에 넘쳐있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이 땅에는 위대한 김정일시대가 펼쳐지고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였다.

울음창창한 밀림에서 구호나무늬발들 새긴 무사들의 소년대로, 백두광명성전설을 낳고 전해진 인민의 지향과 념원대로 우리 조국과 세계는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비상한 정지력, 군사실력을 목격하였다.

백두산을 말할 때 역사에 아로새겨진 다음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떠올려다.

주제 71(1982)년 6월 중순 백두산기슭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있었다. 조선혁명의 시련이 열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본사기자 박일민

## 혁명의 성산은 말한다

주제 45(1956)년 6월 5일 중 학생들로 무어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이 답사행군에 나서 커다란 과문을 일으켰다.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에서 가림천기슭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꽃다발을 드리고 《유격대 행진곡》을 부르며 보무당향리 나간행군대.

이 역사적인 답사행군을 받기하시고 언제나 대오의 맨 앞장에서 답사단을 인솔하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답사성원들이 항일유격대원처럼 배낭도 질서있게 정돈하여놓게 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생활하여본 자신께서 대원들의 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수 밭도 지시였다.

답사가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광강도혁명전적을 답사하여야 하며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면 정지력을 높일것보다 더 많은것을 배우게 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에로의 첫 혁명전적지답사길은 우리 장군님에 의하여 이렇게 개척되였다.

주제 61(1972)년 5월 어느날 리고 눈보라가 세차게 일어 한치안도 분간하기 어려운 속을 뚫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백두산으로 향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힘찬 눈길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이시며 조선혁명이 어떤 길을 헤쳐왔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달을수 있고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쉽게 극복할수 있다고 하시며 앞장에서 눈보라를 헤치시였다.

일행은 드디어 백두산에 올랐다. 불수루 정자인 백두의 설경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삼려 싸워나가자, 이것이 오늘 내가 백두산에 올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결의이고 또 동무들에게 하고싶었던 말입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새기신 불굴의 신념과 의지, 그것은 우리모두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할 귀중한 철리이다.

주제 89(2000)년 3월 새세계 휘몰아치는 백두의 실현공을 헤치시며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천고의 밀림을 드르릉 울리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세대가 백두의 혁명정신을 실지 해보아야 하며 그야 혁명의 머나먼 길을 끝까지 갈수 있다!

절세위인의 백두의 행군길, 여기에 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한 혁명승리의 진리를 받아안았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이시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순결하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철의 신념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떠날들려 누구나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의지는 날을 따라 더욱 역세여지고 있다.

본사기자

백두산밀영고향집,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라하면 조선혁명의 어떤 드물지 않는 뿌리를 마련하시어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누구나 가슴을 뜨겁게 작신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발휘한 충실성과 그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를 높이 존경하며 따르고있습니다.》

위인의 업적은 또 한분의 위인에 의해서만 역사에 더욱 광휘로운 빛을 뿌리게 된다. 주제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던 1980년대 중엽 백두산밀영을 발발하는것을 막는 미흡수없는 력사적과과를 보시고 이 일을 꼭 자신께서

하시야 할 일로 스스로 맡아 안으신 어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소백수풀에 여러 차례나 답사성원들을 과견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백두산밀영을 발굴하는것은 후대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김정일동지의 고향집을 하루빨리 찾아 꾸러는것은 후대들에게 지닌 자식의 의무라고 절정히 말씀하곤 하시였다.

마침내 소백수풀에서 사령부 자리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 대원들의 병실자리 등이 발굴되였다.

주제 77(1988)년 8월 어느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옛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된 백두산밀영을 보니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며 기쁨에 넘쳐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또 한분의 백두산장수를 모신 기쁨을 담아 투사들이 항일의 날날 장수봉이라고 부르던 고향집위의 높이 솟은 봉우리 이름도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정일봉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거룩한 혁명정신을 그이 간직하고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정일봉.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있어 백두산이 그러도 성스럽고 빛나는것처럼 정일봉 또한 이 나라의 산마루위에 높이 솟아 신비의 빛발을 뿌리고있다.

정일봉은 우리 장군님의 위인성과 더불어 빛나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다.

정일봉을 둘러싸고있는 항일혁명전적지, 정일봉의 옛날 기슭이 어찌갈 불같은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는 우리 천만군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정일봉의 역설 기슭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본사기자 박일민

본사기자 김준혁

본사기자 리수정

## 위인파 명작 인민이 드린 첫 송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민민의 심장속에 영생하는 위인에게는 비범한 혁명생애와 출중한 인품에 매혹되어 인민이 삼가 드린 송가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가운데서도 인민이 지어부른 첫 송가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비할바없이 크다.

첫 송가, 이것은 하나의 음악작품이기에 인민의 시아에 처음으로 비견위인의 모습이다.

조선의 첫 위인송가 《조건의 별》을 지은 혁명시인 김혁은 온 겨레가 그토록 갈망하던 민족적영웅의 모습을 한편의 노래로써 조선인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로 시작되는 노래는 조선인민이 고대하던 비범하고 출중한 위인의 존재, 그 출현을 세상에 알리는 력사의 종소리였다.

조선혁명의 력사에서 장엄한 계승의 시대가 열리던 1970년대에 우리 인

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통하여 가슴벅차게 받아안았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하렵니다》라는 구절로 시작된 송가는 마치 조선의 새아침을 펼쳐며 태양이 솟아오르는듯한 환희와 한없이 넓고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긴듯 한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장군님을 또 한분의 위대한 조선의 태양으로, 《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칭송한 첫 송가라는데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의의와 시대적가치가 있다.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는 주제 60(1971)년에 작곡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의 비범한 위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인민들속에 널리 퍼져갔다. 문학예술혁명이 일어나던 나날에 영화혁명의 불길과 대극장의 불빛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은 영광을 지니였던 문학예술인들은 원래의 존경만으로는 그의 특출한 위인상의 찬탄만으로도 다 칭송할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0

년대의 문학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칭송하기 시작하였다.

그 나날 인민들속에서는 1920년대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송가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칭을 문방에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뜨겁게 울려나갔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제문학예술의 대진기를 펼쳐주시고 자신들을 혁명적인 작가, 예술인들로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칭송하는 송가가 있어야 한다고 격동된 심정을 감지 못해하며 먼저 한자찬가 주옥같은 시어와 선율을 엮어나갔다. 노래가 완성되던 날 그들은 노래제목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로 하였다. 이렇게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는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집체적으로 창작하여 제일 먼저 불렀으며 그후에 온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이 노래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음으로 불리워졌것은 주제 60(1971)년 2월 16일이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에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뜨거운 눈물

을 흘리며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불렀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첫 송가가 태어나기를 절절히 바라던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정열과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삼시대에 문학예술부만이 아닌 전국의 로동계급과 농장원들, 인민군인들과 청년들, 학생들속에 널리 퍼져갔다.

《천애하는 지도자동지》라는 존칭은 이 노래와 더불어 날을 따라 인민의 심장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명하신 그의 존함과 더불어 또 한분의 자제로서 어버이의 친근하신 모습을 뚜렷이 새겨준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가 가지는 인민의 첫 송가로서의 특출한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리르며 송가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심장깊이 음미해보고있다.

피눈물의 12월의 그 나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를 늘 마음속에 그려보시며 그의 미소를 자신의 고결한 헌신으로 지켜 오신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대를 이어 인민의 심장속에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영연

히 새겨주는 바로 여기에 이 노래가 위대한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온 나라 전 인민에게 감동한 충격을 안겨주는 커다란 사상적정감력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맹세를 드리며 이 노래를 불렀던 우리 인민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원수님을 다지고 정권을 굳게 지키는 위대한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었던 1970년대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처럼 대를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이 땅위에 거이 위대한 대원수님의 넋을 꽃피울 것들의 각자 끝없이 용감충성되고있다.

맹세는 실천으로, 광심으로, 한숨을 바쳐 지켜야 함을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는 신념의 기둥으로 세우려고있다.

그렇다. 1970년대의 문학예술인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것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수행위에 한몫 기여하여 바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진책배기전후, 동지가 되라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참모계 살라고 노래는 심장의 당부를 남기고 있다.

본사기자 리수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는 고 임력신 수도의 거머들에 오늘도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오랜 기간 일하여온 어느 한 일꾼의 집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49(1960)년 7월 15일 평양안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찍으신 뜻깊은 졸업사진이 소중한 보물처럼 남아있다.

수수한 교복을 입고서 대령의 중임을 이룬 뒤를 온건에 다른 학생들과 어깨나란히 서서서 밝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하신 위인의 모습이다.

돌이켜보면 항일의 총성이 울리는 백두밀영에서 첫걸음을 떼는 때인 그의 탄생도 비범하였고 이 땅위에 주체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그의 탄생도 절충하였건만 그토록 평범하신 모습으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벌써 어린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보통학교 수공수장에 애국의 자욱을 짙은 장군님,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던 전화의 그 나날에 인민과 교락을

같이하신 못 잊을 추억을 전하며 장자산의 두그루 잣나무는 푸르려 설레이고 그이께서 동무들과 함께 폐허속에 한장, 두장 수집하신 벽돌들이 세월 뒤고 일떠세우신 수도의 거머들에 오늘도 간직되어있다.

너무나도 평범한분이어서 누구나도 평범하다. 목도해올 메시고 어깨에 피어있는 지도록 흉표를 나르실 때,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시라니 이 이름표를 할머니의 석란 바구니를 들어주시는 때, 누가 감히 그분께서 온 나라 인민이 전설속에 그려보던 백두광명성인신출 상상이나 했랴.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언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시였을 때 바로 그이께서 언제나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하여오시던 그분이라는것으로 하여 더더욱 감격의 환호성을 터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태양이 솟아오를 때 아름다운 노을이 소리없이 피어나듯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듯 조용히 인민의 겉으로 오시어 광휘로운 빛발로 인민을 이끄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영도자이시다.

승철진



# 백두산대국의 력사 빛내이신 그 업적 길이 전해가리

불후의 고전적명작

## 조선아 너를 빛내리

1. 해돋는 통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2.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계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3.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 룡남산의 노을은 오늘도 붉게 탄다

주제 49 (1960)년 9월 1일!  
그때는 우리 장군님께서 통남산에 오르신 소식조차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못하였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남산에서 다지신 맹세가 새겨주는 력사적의의는 얼마나 심원한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갈 필생의 의지를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담아 피력하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이 길이 빛내이자, 이것은 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룡 남 산 의 맹 세, 그 것 은 어버이수령님께 드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의 선서였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신 필생의 언약이었다. 그 숭고한 계승의 맹세를 다지신 때로부터 반세기 가 넘는 우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은 조선을 위대한 태양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일 웅대한 목표로로 지향되어왔다.  
얼마나 위대한 혁명령도의 날과 달들이 흘렀인가.  
우리 장군님의 손길밑에 당사업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고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양양기가 펼쳐졌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의 선포와 속도전의 방침이 구현된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 세계를 경탄시킨 문학예술혁명, 무적장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필승의 기상과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강력 한 힘...  
있을수 없다.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운명이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을 책임지리라, 조국을 위대한 나라로 빛내이리라는 통남산의 성스러운 맹세를 되새기시며 선군의 보검을 더 높이 추켜드시었다.  
오늘도 선군혁명령도의 전선길에 눈물속에 어려온다.  
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신 백두명장의 피더운 자욱자욱이 그 천 만리길에 얼마나 진하게 새겨져있는 것인가.  
군대가 약화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없으며 나라가 망할수 있다. 총대를 중시하여야 사상중시도 확고히 전지할수 있고 경제강국도 건설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자 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도 마련해줄수 있다는 철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력사에 류례없는 장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길, 전선동부에서 전선서부에서, 전선에서 후방으로, 또다시 전선으로...  
사나운 눈보라와 피약발을 가림없이, 아찔한 칼벼랑길과 풍랑세찬 바다길도 서슴없이 달려서야 했던 그 헌신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룡남산의 맹세를 지키는 길에서도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면 격정을 금할수 없다 새겨져있다. 주체비밀로, 주체비밀로이 쏟아지고 CNC기술에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 눈굽을 뜨겁게 적시여준다.  
나도 인간인것만큼 힘이 들고 잠이 나도록 때가 많습디다. 그러나 나는 편안히 휴식할수도 없고 마음놓고 잠을 잘수도 없는 몸입니다. 나는 일찌기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사랑하는 내 조국, 우리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며 떨칠 굴은 맹세를 다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수령님의 전사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융성번영 하는 시대로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는데 나는 아직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있습니다. ...  
강계에서, 생강에서, 라남과 락단으로 출기차게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현지지도의 로정우에서 조국과 인민을 새롭게 분발시킨 강계정진, 생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편이어 라올랐다. 전국각지의 불꽃이던 눈발들이 드넓은 규격포전으로 전변되고 자연호흡식물들이 기름진 별들을 적시주는 변혁도 일어났다. 숨죽였던 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울릴 때 되었어 호르던 수많은 물줄기들이 발전소들이 일떠섰고 푸른 산관들에 축산기자들이 솟아올라 연소 때가 흩날렸다.  
그처럼 엄숙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시고 조국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진방성있게 다져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의 자욱은 조국마다 어디에 새겨져있다. 주체비밀로, 주체비밀로이 쏟아지고 CNC기술에

서의 폐편을 틀어던졌과 같은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펼쳐졌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 오신 우리 장군님의 령도밑에 수물처럼 일떠선 조국의 귀중한 재부들...  
우리 조국의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우리가 제힘으로 부흥할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특별한 업적이다.  
세계를 둘러보고 력사를 거슬러보라. 어느 시대, 어느 정치가가 당대에 이렇듯 놀라운 세기적업적을 쌓아올린 례가 있었는가.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실력과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완강한 전제력, 인민의 심장에 불을 지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키는 대중 령도방법을 완벽하게 구현하시어 김일성조선의 기적의 연대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공화국의 력사에 무궁토록 빛날것이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지난 세기 60년대에 통남산언덕에서 높이 울렸던 애국의 맹세는 오늘 경계하는 원수됨에 의하여 편편히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그이의 세련된 령도밑에 젊음으로 약동하는 이 땅에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고 있다.  
창공높이 나뭇기는 사랑하는 우리 국기의 세한 퍼덕임소리에서 천만민들은 영원히 메아리치는 룡남산의 맹세를 들는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조선혁명은 총대와 함께 부대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외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부대의 위력을 비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백승을 떨치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력력한 빛을 뿌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부대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낮과 함께 부대가 새겨진 성스러운 우리 당기발,  
우리를 수호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우리 당의 부대중시사상이 빛발친 력사의 그 기폭, 항일혁명투쟁의 나날로 담음쳐간다.  
10대의 시절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 벌써 혁명투쟁에서 출몰, 언론활동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새날》신문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하신데 이어 피어린 항일의 전장에서 수많은 혁명적 출판물들을 발간하신 그 업적은 실로 위대한것이다.  
항일의 나날에 이어 한평생 부대를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당보를 창간하신 그날과 더불어 우리의 출판보도물들이 당의 혁명위업수행에 참담계 이바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부대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부강조국건설투쟁에서 크나큰 위력을 떨치었다.  
혁명령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 절 세 위 인 과 붓 대

혁명의 부대를 더욱 강화하여 승리를 떨칠 력사의 의지를 담을 수 많은 고전적 로작들을 발표하시었다. 절세위인의 고전적로작들의 갈피를 번질수록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성격과 기본사명을 밝혀 주시고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고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출판보도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외지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정력적인 령도로 당보 《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 당출판보도물들을 비강화하고 선군조선의 기자, 언론인들을 강성국가건설의 진군나팔수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가 있어 선군조선의 부대는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는 오늘 당보 《로동신문》의 강화 발전에 갖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당보청사구내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이 오늘도 력력히 빛나고있다.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로동신문은 항상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서 당중앙을 응위하여야 합니다.》  
1995. 11. 19  
김 정 일  
비범한 령도로 혁명의 부대를 비강화하고 강화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불멸의 글밭에 실려 어려온다.  
한평생 혁명의 부대강화를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편의 영화나 한권의 글이 수천의

식량이나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전선을 지켜선 당보의 문필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였으며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었다.  
선군혁명천만리길을 헤쳐시는 그 나날에 두 수시로 당보의 문필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며 그들에게 혁명적신념의 대를 역적으로 세워주시고 친히 글의 종자도 밝혀주시고 집필방법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신 위대한 스승의 손길은 얼마나 자애로운것이였는가.  
당의 의도대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영웅들이라는 고귀한 믿음도 안겨주시고 좋은 글이 나왔을 때에는 선함으로 보아 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필자들을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신 그 사랑은 또 얼마나 극진한것이였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당보기자들만이 아닌 이 땅의 수많은 문필가들이 우리 당이 이기고 인민이 사랑하는 언론인들로 자라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선군조선의 부대는 오늘 빛나는 전성기를 맞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력사적전진군위에 부대포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가시는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의 구절구절이 오늘도 천만의 심장마다에 거세한 불길을 지져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출판보도선전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절

저히 세우고 사상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방법, 일 본에서 군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서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기사와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군본원칙도, 당정책을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수 있게 론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해설전전하기 위한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믿음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심장마다에 거센 불길이 활활 타번지게 하고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전진군에서 당보기자들을 만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보의 문필가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어 키워주신 내세워주신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로동신문사의 모든 기자, 편집원들은 이에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좋은 글을 써내기 위하여 계속 분발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  
그토록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머 당보의 문필가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언론인들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 자애로운 스승을 높이 모시며 혁명의 세대와 년대를 이어 더욱 굳건한 부대의 위력을 절감하고있다. 보다 창조한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그렇다.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당의 부대는 굳건하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외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시였을 때였다.  
어느날 공사장에서 나오는 얼마 안되는 석탄이 땅에 묻히는것이 아까와 왔다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석탄을 퍼내어 안전한 장소에 옮겨  
다놓고 인민들이 가져가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손수 삼을 드시고 할머니의 바게뜨에 석탄을 담아 주시었다. 뒤늦게야 우리 장군님을 알아보고 되돌아와 인사를 올리는 할머니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위해 일하는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그때 벌써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짙게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오늘도 외산동-룡성도로확장공사때의 그 할머니이야기를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것이다.  
인민을 위해 일하는것보다 더 귀중하다고,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쇠물을 보기 전에 용해공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전하며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쇠물을 보기 전에 용해공들을 먼저 보라는 유명한 명제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돌아본 그런 좋은 집을 우리 인민들모두에게 주려는것이 나의 소원이며 절실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을을 떠나오면 서 나의 그 절실을 꼭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다졌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던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이 선택하는 혁명일화



룡남산의 맹세 심장에 새기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간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 선천군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각계의 반향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과 같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도를 지닌 인민은 없다.》

당보에 실린 기사 《연합없는 애국충정으로 인생길을 수놓아온 참된 인간》의 주인공인 강동명동무는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어느 초소에서든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공민적정신을 다 바치는 길에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말건 도로관리에 헌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참된 애국자이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깨끗한 량심과 헌신으로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일편단심 당을 믿고 따르며 한생을 값있게 살리

선천공업성 부상 김영남동무는 강동명동무의 삶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가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강동명동무가 30여년세월을 도로관리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길은 멀지만 평범한 사람의 삶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순결한 도덕의리심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자기를 친어머니의 사랑과 정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따사로운 품, 나라를 위해 크게 해놓은 일도 없는 자신에 대한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안겨준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던 강동명동무의 삶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된다. 강동명동무의 애국충정을 거울삼고 당의 사상과 평도를 앞장서서

발들어나카며 나라의 선관생산을 책임진 일꾼의 한사람으로서 자욱을 이어가시는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던 강동명동무의 삶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된다. 강동명동무의 애국충정을 거울삼고 당의 사상과 평도를 앞장서서

발들어나카며 나라의 선관생산을 책임진 일꾼의 한사람으로서 자욱을 이어가시는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세겨안을수 있었다. 자기가 맡은 초소를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기를 위한 중요한 일터로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으로 삶을 빛내여온 강동명동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떤 자세와 림장에서 당과 수령을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세겨안을수 있었다. 자기가 맡은 초소를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기를 위한 중요한 일터로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으로 삶을 빛내여온 강동명동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떤 자세와 림장에서 당과 수령을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세겨안을수 있었다. 자기가 맡은 초소를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기를 위한 중요한 일터로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으로 삶을 빛내여온 강동명동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떤 자세와 림장에서 당과 수령을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세겨안을수 있었다. 자기가 맡은 초소를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기를 위한 중요한 일터로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으로 삶을 빛내여온 강동명동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떤 자세와 림장에서 당과 수령을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세겨안을수 있었다. 자기가 맡은 초소를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기를 위한 중요한 일터로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으로 삶을 빛내여온 강동명동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떤 자세와 림장에서 당과 수령을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세겨안을수 있었다. 자기가 맡은 초소를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절세위인들을 더 잘 받들어모시기를 위한 중요한 일터로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모습으로 삶을 빛내여온 강동명동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어떤 자세와 림장에서 당과 수령을 받들어모시려는 지향성이 그토록 열렬하고 진실했기에 강동명동무는 자기 말도 도로를 평도차와 현의 정으로 도로를 평도차로 여기고 인생길에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자욱함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강동명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동명동무가 지닌 변함없는 애국충정과 같은 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으며 각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 송고할 공민적자격을 안고

### 각지 근로자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칙이듯이기에 량심과 의리로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더 잘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동대원구역 김창복교과목교실에서- 본사기자 림 학락 찍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감사전문을 보내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각하

나는 친선적이고 아름다운 우간대에 대한 공신선반문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캄팔라를 떠나게 됩니다. 나는 이번 우간다방문기간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여준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과 전국학생운동본부의 평도차에 우간다인민이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것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방문기간에 직접 귀국정부 고위인물들과의 회담과 담화에서 쌍무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서로의 림장들을 내놓고 진심으로 되는 토의를 진행하고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디.

우리의 이번 귀국방문이 의심할바없이 호상 리해와 우의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발전을 가일층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으며 나는 이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친선적인 귀국인민이 변명하는 우간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 할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 필리페 뉴씨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총선거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이 또다시 승리를 이룩하고 당신이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귀국에서의 이번 총선거결과를 당신과 모잠비끄해방전선당에 대한 인민들의 커다란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봅니다.

나는 오랜 령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조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 우간다 대통령에게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10월 29일 평정철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영애하는 김영남동지께서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영애하는 김영남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형제적인사를 전하 여드림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하는 나의 스승이시며 친형제시니이다. 아프리카사람들을 위해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그의 존함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조선인민이 영애하는 김영남의 최고평도차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 세력들의 책동을 제압하고 사회주의길로 뚜벅이 나아가고 있는 우간다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곧한번 조선인민이 자기 평도차를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김 향 탄







